

뿌리 깊은 신앙과 연출

성경 본문 : 요한복음 14장 1~10절

<전 초>

1.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그냥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개발해서 귀하고 크게 쓰는 사람’도 있다.
2. 선생의 최고 능력 중 하나가 설교다. 선생의 설교만 봐도 더 노력하고 개발해서 잘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3.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하셨다. 선생도 “나도 많이 해보고 고생하면서 배우고 실천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도 심은 만큼 거두고 얻게 되고, 개발하여 얻는다.
4. 선생은 더 노력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뿌리가 더 크고 깊이 박힌 사명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본으로 삼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할 수 있다.” 하신다.
5. <하나님이 보낸 자>도 노력해서 심고 개발하여 얻고 거둔다. 이와 같이 <따르는 자들>도 고생되더라도 자기를 더 좋게 만들고, 노력하고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타고난 재능’을 더 크게 만들어라.
6. <대결작 인생들>을 보면, ‘고통’과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고생과 어려움>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그 인생도 영혼도 크고 귀하게 된다.

7. <뿌리가 크고 깊이 박힌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연출’이 필요하다. <연출>은 ‘메이크업’이다. ‘화장’이다. ‘단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잘 만드는 것’이다.

<말씀 시작>

8. 지난 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선생을 통해 <엄청난 뿌리술>을 발견하게 하셨다. 선생은 뿌리를 흙으로 덮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더니, 밑에 뿌리가 깊이 박힌 상태로 넘어지지 않고 반쯤 넘어져서 뿌리를 드러낸 작품술이었다.

9. <연출>은 ‘출연하는 것’이다.

10. <연출>은 ‘화장하고 가꾸는 것’이다.

11. <연출>은 ‘멋있게 만드는 것’이다.

12. 나무 하나에 백오십여 명이 손을 댔다. 뿌리를 뺀 데마다 퇴비를 해서 덮어놓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연출>을 해야 된다.

13. <연출>은 분재 소나무를 작은 가위로 뜯어내고 찌꺼분한 것을 없애고, 소나무의 긴 부분은 잘라주고 철사갈이를 해서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분도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얹혀주고 좋은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이 연출이다.

14. 건물을 지었으면 꾸미는 것도 연출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뿌리 깊은 신앙들이다. 거목들이다.” 하고 인정했으면, 이제는 <연출>을 해야 된다. 사탄과 흑암에 도둑질을 안 맞게 잘 관리하도록 <철조망>을 쳐야 된다. 사랑의 철조망을 치고 하나님의 것이니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

15. 꼭 연출을 해라. 이 시대에 큰 걸작들을 출연시켰다. 그러니 귀히 여기고 자기를 자꾸 화장하고 만들고 하듯이, 자기를 드러내서 얘기도 하고

철사로 균형을 잡고 틀을 잡아라.

16. <연출>이 그렇게 귀하다.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 이십 배, 이십 배 왔다 갔다 한다.

17. <하나님>은 ‘보통 것’ 을 가지고 내놓고 설교하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가 그와 같다.’ 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뿌리술>은 바위에 바짝 들어붙어서 ‘햇빛’ 을 보며 컸다. 뿌리가 땅바닥에 들어가면 크지 않는다. 나무처럼 바깥에서 햇빛을 쬔니, 나무보다 더 큰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비바람이 쳐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안됐다.” 하며 말했다. 그러나 <시대 신부들>은 뿌리술과 같이 시대 ‘주’ 께 붙고 ‘하나님’ 만 쫓으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술과 같이 내놓은 것이다.

18.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길>이 생명이다. 길을 안 닦으면, 아무리 좋은 금강산도 올라갈 수가 없다. 어느 좋은 곳이든 길이 있어야 간다.

19. <주> 자체가 ‘길’ 이다. 그를 따라가면 된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길이 된다. 그는 험한 곳도 다 쉽게 가도록 만들어 놓는다.

20. <주>는 ‘진리’ 다. 그 자체가 진리다. 진리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 받는다.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행해야 된다.

21. 이 시대에 진리를 찾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진리>없이는 ‘영원한 세계’ 를 갈 수 없다.

22. 성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것이 진리가 있다. 비진리가 아닌 것, 참된 것, 이러한 것들로 행해야 성공한다. 비진리로 하면 실패하고 심판 받는다.

23.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한 생명체’ 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가 생명이니 일체되어 행하라.

24. <자기 얼굴> 보기는 어렵다. ‘거울’ 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외람되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을 통해서 보라고 하셨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거울 같은 ‘하나님이 보낸 자’ 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25.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거울 같은 ‘하나님이 보낸 자’ 를 통해서 보고, ‘선지자’ 를 통해서 보고, 때로는 ‘자기’ 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비취보기다.

26. <하나님>이 ‘주’ 를 쓰고 행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만 알아주면 주 하나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러러보고, 자기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7.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람’ 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영적인 자>다.

28. <성령>이 ‘주’ 를 통해서 못하는 것은 ‘상대’ 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다. 상대가 없으면 강아지한테 물어보거나 만물한테 물어보면 대화가 된다.

29.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는 빨리 대답하신다. 직접은 안 나타나신다.

30. 사람을 통해 <답>을 주면, 무조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대답을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이는 성령께서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31. <소나무>가 대 걸작품이 되려면 뿌리가 크던지, 나무다 크던지, 작아도 수형이 잘 잡혔던지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저마다 타고난 크고 작은 체질이 다 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작품에 속

한다.

32. <신앙>도 저마다 ‘특기’가 있다. 일일이 갖다놓고 찾을 수 없으니, <본인>이 찾아야 된다.

33. 성령께서 <자기>가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고 했다. 항상 윗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본인이 잘하면 잘한 것이다. 흠 없이, 책망할 것 없이 하면 잘한 것이다.

34. 저마다 ‘개발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쓰는 사람’도 있다. ‘전문적으로 개발’하면 <전문가>가 된다. 고로 저마다 여러 가지 특기들이 있는데 개발했으면 엄청나게 되고 연출하는 것이다.

35. <개성의 왕>으로 살아먹기다.

36. 선생도 어렸을 때 보면, 잘하는 것과 타고난 것이 없었다. 10대, 20대 초반까지도 그러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만 우리러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했다. 선생은 못하는 게 잘하는 것이었다. 말도 못하는 것을 정말 잘해서 사람들이 “수화로 해.”라고 말할 정도였다. 또 일을 하다보면 늘 지적받고 꿈틀꿈틀 해보려고 해도 안됐다. 그러나 지금은 잘하는 것이 7-800가지가 된다. 이는 다 <노력의 결과>이다.

37. 사람이 <생각>이 크고 <정신>이 커야 된다. 그래야 그 터전에서 <실천>도 크게 일어난다. 생각이라는 것은 크고 풍성해야 되고, 이해력도 커야 된다.

38. 뿌리 깊은 신앙과 연출이다. 이제 연출을 시켜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귀하게 대함을 받는 <뿌리 큰 나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뿌리>가 커지려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된다.

39. 기도와 말씀,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휴거를 이루는 것, 노래를 열심히 하며 감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자, 관리하는 자, 주를 섬기는 것, 하나

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좋고 착한 것, 생각과 집념이 강한 것 등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들>은 ‘희귀성’이 있고 ‘아름답고 신비한 걸작의 인생들’이다.

40. <찾은 자>는 모조건 ‘연출’을 해야 된다. 자기를 자꾸 다듬고 만들어야 된다. 찌꺼분한 것은 다 없애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기다.

41.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정말로 잘하는 특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모든 사람에게 위함을 받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무언가를 잘해야 높임을 받는다.

42. 나타나기만 원하지 말고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귀히 보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덜 만들어서’ 그렇기도 하다. 본인을 멋있고 아름답게 연출을 시켜야 된다.

43. <걸작 신앙>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해주신다. 자신을 소나무같이 연출하면서 귀히 여겨야 된다.

44. 선생이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의 무지>를 깨달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귀한 것을 모르면 남 귀한 것을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귀한 것>을 깨달았다. 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살았다.

45. <자기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관리 안 해서 죽는다. 절대 자기가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다.

46. <예수님>은 정말 ‘뿌리가 큰 걸작’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붙어서 사니 근본 뿌리, 신앙의 뿌리가 20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47. <섭리>에도 ‘뿌리 깊은 나무들’ 이 많다. 성격상 심지가 깊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평평 넘어진다. 그러나 ‘어리고 환난을 받아도 안 넘어지는 신앙들’ 이 있으니, 이는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

48.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큰 나무가 돼야 된다.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어야 된다.

49. 여러 가지를 갖추면 이지가지로 기둥도 멋있고, 수형도 잘 잡히고 크기도 크고, 뿌리도 크다. 고로 <완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50. <정신>과 <사상>과 <이념>은 정말 커야 된다. 선생은 몸집이 작아도 ‘세계적인 타이틀’ 을 갖고 있다. <정신>과 <사상>이 강하니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거대한 자’ 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을 지어주는 자’ 가 된 것이다.

51. 나무도 1년에 1점씩은 크다. 이와 같이 나무도 크는데, <하나님의 시대 신부들>이 안 크면 안 된다.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커야 걸작이다.

52. <영적인 자>는 ‘정신적, 생각에 속한 자’ 다. <뿌리가 크다는 것>은 ‘영적인 터전이 대단한 자들’ 을 말한다. <영적인 터전이 강한 자들>이 ‘뿌리 깊은 걸작품’ 이다.

53. <영의 세계에 꼭 들어박힌 자들>은 섭리를 안 나간다. 결국 <뿌리가 강한 자>가 남아있다.

54. <나무>는 ‘열매’ 로, <사람>은 ‘행동’ 으로 본다. 사람들은 ‘어떻게 계시를 받는 자들이 나갈까?’ 하지만,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 뿌리가 약하니 계속해서 잡아주다가, 손을 놓으니 넘어지는 것이다. 이는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뿌리>만큼은 강해야 된다.

55.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어

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자들이 있다. 만들면 된다. 자꾸 하다보면 <소질>이 된다. 잘되는 것이 소질이다. 소질은 반드시 있다.

56. <조은 목사>도 ‘타고난 것’ 이 아니다. ‘99% 노력’ 이다. <진리를 깨닫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니 잘하게 된 것이다. 고로 안 하면 안 된다.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잘 되니, 없다고만 하지 말고 만들어라.

57. 누구에게나 <타고난 것>이 다 있다. 그러나 ‘개발을 안 한 것’ 이다. 무엇이든지 만들면 있고, 안 만들면 없다. 또 있는 것도 ‘관리를 안 하면’ 없어진다.

58. <하나님이 1차 천지창조 해놓은 것>으로만 살면 만족이 없다. <2차>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야’ 만족이 된다.

59. 자기가 부모에게 태어난 <육체>만 가지고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만들면’ 희망이 있다. 선생도 <월명동>에 불거리가 없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만드니’ 희망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경 오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소질과 재능을 넣어서 자기를 창조했으니, ‘개발’ 하면 된다.

60. <어떤 것>은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있다. 금강산과 같이 멋있는 산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인간이 손댈 것>만 손을 대야 된다. 월명동도 손 댈 것만 댔지, 안댈 것은 안 댔다.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야 귀하게 여기니, 어느 정도까지만 한 것이다.

61.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만들기다.

62. <자기>를 자세히 봐야 된다.

63. 모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미 해놓기 전에 <자기에 맞게 구상>을 미리 멋있게 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64. 만들고 개발하고 연출을 잘 시켜놓으면 귀하게 본다. 연출을 안 시키면 <미인>도 ‘시장 아주머니’로 본다.

65. <뿌리 걸작술>도 깨닫기 전에는 초라하고 불쌍했다. <자신>도 깨닫기 전에는 초라하고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살게 되고, 신비하게 웅장한 존재자가 된다.

66. <월명동 자연성전>을 개발하듯이, <자기>가 귀한 것을 깨닫고 연출시키고 내놔야 된다. 더 귀하게 만들려면 할 일이 많다.

67. 저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일반적’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의 전이니 ‘큰 것’이다.

68. 저마다 하나님, 성령님이 늘 쳐다보시도록 눈에 띄게 해야 된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희망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69. 타고난 소질과 체질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젊고 시간이 충분하니, 당황하지 말고 초근초근해라.

70. <자기>를 하나님께 ‘개성으로 최고자’로 만들겠다고 하며 만들어야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운동선수들>도 지구상에서 최고 잘하겠다고 하면, 그 센터에서 ‘금메달’을 땀다. <최고로 잘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안 꺾이고 해야 거기서 조금 못 하면 은메달로 돌아가고 동메달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로 <최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71. 놀지 말고 부지런히 만들어라. 그러면 <육신> 일생 칭찬도 받고 보람도 있고, <영>은 영원히 살게 된다.

72. 다른 것을 쳐다보면 실망된다. <잘하는 것>을 쳐다봐야 된다.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영광을 받아라. 운동하듯이, 섭리를 뛰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73. 부지런히 자기 환경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연출해라. 오묘하고 신비하고 멋있고 웅장하게 만들기다.

74.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육신이 버릇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 버릇을 좋게 들이라고 했다. 체질화 시켜라. 자기를 알아주고 봐주기만 바라지 말고, 만들어 뇌라. 그러면 얼마든지 본다.

75. <뿌리술>은 ‘섭리의 표상’ 이고 ‘주의 표상’ 이다. 또 ‘성령 상징’ 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으니 찾은 것이 많다. 모두 찾아라. 열심히 행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고로 저마다 부지런히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된다. 홀로 행하면 힘들고 못 찾는다.

76. 새 시대에 와서 새 것을 받고 사니 희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 그러니 저마다 할 일을 하고, 삼위와 새 시대 휴거를 한 자들이니 열심을 이루면서 매일 황금천국의 삶을 살아라.

77. <새 시대>도 <휴거>도 귀하게 여기고, <주>도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기>를 참 귀하게 여겨라.

78. 행하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기도 하지만, 몰라서 스스로 팔아먹는다. 온전하게 만들기다. 하나님, 성령님, 주를 섬기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79. <하나님의 새 시대>는 마치 지구 돌리듯이 쉽 없이 돌아가는데, <안따라가는 자>는 빨리 가는 줄 모르고 부지런할 줄 모른다. 지구를 다시 돌릴 수 없듯이 지난 세월을 돌릴 수 없으니 끝나게 된다. 정신 차리면, 앞에 오는 것을 잡는다.

80. <행한 자>에게 자꾸 주시고 자기를 깨닫게 된다.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구상과 생각’ 과 다르다. <행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81. 희귀종 술과 같이 수형이 좋든지, 나무가 좋든지, 덩치가 좋든지, 생김새가 좋든지, 뿌리가 굵고 크든지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 한 가지라도 하면 눈에 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서서히 알아준다.

82. 저마다 가진 것이 있으니, 개발하고 찾아 행하라.